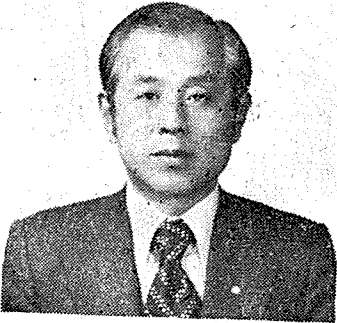


## 離 任 辭



지난 2년간 3천여會員 여러분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淺學菲才한 本人으로 하여금 會長職이란 중책을 大過없이 수행해올 수 있었음은 전체 會員 여러분의 크나큰 격려와 끊임없는 성원의 결과라 믿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衷心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년간을 회고해 볼때, 우리 齒科界는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문제들이 부각되었던 과도기적인 시기로 전체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식이 요구되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保社部の 齒務擔當기구축소는 어제 오늘의 痛事가 아니거니와 작년부터 시행된 醫療施惠 醫療保險실시는 우리會員들에게 唐酷으로 닥쳤고 醫療技士法으로부터 비롯된 技工酬價과동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노증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課題들을 앞에 놓고 내 나름대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 혼신의 熱과 誠을 다해 東奔西走했으나 스스로의 能力 不足으로 회원들 所期의 여망을 충족시키지 못한채 물러서게 된점, 회원 여러분께 마음깊히 사죄 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1천 5백여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새마을齒科診療院을 통한 봉사정신과 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선탕덜먹기운동을 創案하여 물자절약은 물론 국민口腔保健에 이바지하는 齒醫像을 對内外에 파시할 수 있었으며 그간의 當面과제였던 齒科機資材의 원활한 수입과 가격평준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 지금에는 약간이나마 원활을 기할수 있게 되었음을 그동안 本人을 도와준 任員陣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못다한 점 신임 池憲澤 회장님을 비롯 새 任員陣이 회원들의 여망에 맞게 성취시켜 줄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앞으로의 會務에 바람직한 결심을 거두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전체 會員들의 總和團結로 이루어진 參與와 協調가 뒤따라야 할줄로 압니다.

이는 本人이 지난 2년간 會長職을 맡아 오면서 會員들의 團結이 그 얼마나 중요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가를 절실히 느껴온 소치입니다.

이제 會長職을 떠나 하나의 평범한 회원으로써 在野에 묻힌다 하더라도 本人의 會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는 조금의 변함도 없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봉사하는 齒醫像의 具現을 위해서 齒協역만년대의 후배양성을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가 人和團結로 뭉쳐 社會깊숙히 齒醫像을 심어 齒界中興을 이룰 날을 다짐하며 그동안 會員들과 임원진들의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968년 4월 일

金 仁 哲